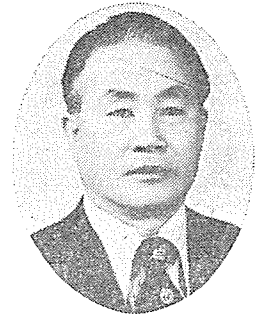


살아 남을수 있는 叢知

— 食糧의 自給自足を 爲한 精神姿勢 —



柳 達 永 博 士
서울大學校農大教授

19세기 中엽에 찰스 다윈의 進化論이 西歐 天地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지식인들의 종래의 思考를 근본적으로 변화 하였었는데 다윈의 그 위대한 學說은 18세기의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말사스(Thomas R. Malthus)의 유명한 人口論에서 着想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進化論을 착상하게 한 人口論은 그 것만으로도 人類史에 크나큰 功績을 낳았다고 할 것이지만은 오늘의 그의 연구를 되짚어 보면 참으로 卓越한 학설이며 위대한 豫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말사스의 人口論은 1798년에 제 1 판이 나왔고, 다음해에 세계 여러나라를 巡回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歸國하여 人口論 제 2 판을 세상에 내 놓았는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지구위의 人口는 幾何급수로 늘어가는데 食糧은 算數급수로 늘어가게 되므로 人類는 앞으로 食糧不足으로 큰 危期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社會의 죄악과 빈곤은 이로 인해서 끊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情慾을 自制하고 人口過剩의 自然力을 防止하기에 힘써야 한다”.

이 학설이 발표 되었을 當時에는 이 위대한 학

설은 한낱 興味있는 着想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人間의 수명은 지금에 비하여 몹시 짧았고, 질병에 의하여 어린 아이의 死亡率은 대단히 높았을 뿐 아니라 호열자나 瘧疾 등의 傳染병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人口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갖을 날이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人口의 自然증가가 억제 되었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농업이 기계화 됨에 따라서 食량이 과잉생산 되는 나라들도 있어서 말사스의 人口論을 위대한 예언으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지 불과 百年 남짓한 오늘에는 人口의 증가 현상은 기하급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人口爆發로 표현하게 되었고 이 표현을 누구도 과장된 것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농업의 기술이 놀라운 발전을 하였어도 食량의 위기는 예상보다도 훨씬빨리 눈앞에 다가와서 온 人類가 크게 當황하게 되었다.

昨今の 油類騰격으로 온 세계가 얼어 붙다 싶 이하였지만은 食糧위기는 결코 油類騰격의 類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 할 수 있게되었다.

우선 우리 자신의 형편을 먼저 대강 더듬어보기로 하자. 지금으로부터 불과 300여년 전인 1639년의 우리 나라의 人口조사 통계틀 보면 150만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舊韓末인 1907년에는 1,300萬으로, 해방되던 1945년에는 2,500萬으로, 그리고 家族계획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하게끔된 오늘에 있어서도 5,00萬을 넘어서게 되었다.

25년 후에는 남한만의 人口도 6,200만을 넘어서게 된다는 학자들의 추산이다.

우리나라는 太古이래로 농업국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고 日帝下에는 많은 양곡을 日本에 공급하였으며 日本의 軍糧의 창고노릇을 하였었다. 해방후인 1966년에는 自給度가 95.1%였고, 그것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1968년에는 82.5%로, 1971년에는 70.8%로, 1973년에는 68.6%로 급속도로 減縮되었다. 양곡 도입량은 1968년에 150만톤으로 약 1억3천만 말라 있었는데, 5년후인 1973년에는 330만톤으로 약 6억7천5백만 말라에 이르렀다.

1975년에는 8억말라의 양곡을 도입해야 하며 그것도 현금을 가지고도 사드리기가 어렵게 된 형편이다.

양곡 도입량은 우리 국민의 소비량에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량이다. 그런데 이대로만 나간다면 양곡이 더욱 더 부족해 질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양곡이 남아서 수출할 수있는 나라는 세계 백여개의 나라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정도이고 아르헨티나, 타이, 남아프리카에 아직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 뿐으로, 세계 각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날마다 속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놀라운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 정세와 국내 사정을 어렴풋이나마 염두에 두고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식량소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기로 한다 아마도 단군시대 이래로 국민들이 오늘처럼 풍부하게 먹고 또 낭비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불과 50년전 나의 소년 시절만 하더라도 어느 마을에서도 아침과 저녁을 계속해서 밥을 먹는

집은 거의 없었다. 아침에는 밥이고 저녁에는 의례이 죽이었다. 또 밥도 예의 없이 잡곡 밥이지 특별한 경사때가 아니라면 흰쌀밥을 먹을 생각을 못하였었다. 식량을 크게 생산하는 부농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에 이처럼 인구가 폭발을 하고 식량의 절대량이 크게 모자라는 데도 사람들의 식량소비의 태도는 한심할 정도로 절제가 없다. 이대로만 나간다면 불과 수년후에 우리가 겪어야 할 비극을 누구나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未久에 눈앞에 닥쳐 올 食糧 위기에 대처할 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며 또 밝은 슬기는 무엇이겠는가?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가족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식량위기를 극복할 근본대책은 제1 순위 에 가족 계획을 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먹는 인간이 문제의결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폭발하는 人口의 증가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人口의 密度는 우리가 和蘭과 台灣과 함께 1km² 당 300을 넘는 최고의 나라이다. 그런데 和蘭은 국토의 전부가 平地이고 人口 증가율은 0.5%가량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토의 1/4만이 농경지이고 또 인구 증가율은 2.0% 가량이다. 우리가 農耕地當 人口密度를 생각해 본다면 和蘭의 4배가 될 것이고 人口증가율도 또한 3-4 배가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台灣은 우리와 함께 1km²의 人口密度가 300이라고 하지만 그 國土가 열대지방에 자리잡고 있음으로써 1년에 2-3회의 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要因을 객관해 볼때에 人口문제가 우리보다 더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家族계획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역사적 시련이며 과제라고 할 것이다.

둘째로는 식량증산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단위 생산 땅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일본에 뒤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농경지의 地力이 일본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한 조건 하나만 든다면 일본의 수도작에 있어서 거

의 모든 논이 벼짚이 그대로 제자리에 환원 되는 우리는 짚 한 줄기 남기지 않고 다 거둬 들인다. 그래서 이것을 약탈 농업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일본은 해마다 짚을 논에 돌려 주고, 우리는 해마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단위생산량이 일본에 뒤지는 것을 극복할 길은 없을 것이다.

모든 농업은 협업의 기술을 우리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농민만의 협업이 아니다. 온 국민이 양곡생산에 음으로 양으로 농민을 도와 주는 태세에까지 이르러야 하겠다. 이익이 없는 한 농민들의 생산을 위한 士氣는 결코 올라 갈수는 없을 것이다.

농민들이 생산에 기꺼이 全力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도 또 도시민의 협력도 有機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민이 잘 살게 되는 날이야말로 이나라의 福祉化의 터전이 비로소 이룩 되는 것이라는 信念이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의 水利化, 機械化, 化學化, 電化等の 科學化 추진도 온 국민의 食糧生産을 有形 無形으로 돕는 태세 아래에서 이루어질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는 農地의 확장도 물론 뒤 따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의 식량의 소비 절약이어야 한다.

한알의 쌀을 농민들의 辛苦의 결정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자세는 우리조상들의 전통적 미덕일뿐 아니라 하나의 윤리였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국민들의 식량에 대한 낭비와 태도는 분명히 큰 타락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유럽의 가정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때에 누구나 먹을 것

을 남겨서 버리는 것을 볼수가 없을 것이다. 뼈터 접시에 보일 듯 말듯 묻어 있는 것도 주부들은 빵쪽으로 깨끗이 문질러 문질러 먹는다. 우리보다도 열배도 스무배도 더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태도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민들은 식생활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류 및 부유층의 가정에 더욱 그러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식량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사이에서 損失되는 양은 참으로 놀라운 만큼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통계가 없어서 여기에 제시 하지 못하지 마는 쥐와 벌레에 의한 액곡의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또 수확기 운반, 정미, 저장과 정에서 양곡의 손실과 변질로 인한 영양가의 저하도 엄청 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구위에 살아남아 번영 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농민들 증산만이 아니라 양곡을 먹는 모든 국민이 다함께 양곡자급에 대한 성실한 협력이 이루어 져야한다.

농업은 결코 단순한 경제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참으로 經濟以前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은 국민의 生의 뿌리인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말라 죽을 수 밖에 없듯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일지라도 농업의 전전한 바탕을 가지지 못한다면 스스로 뿌리 없는 나무의 종말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말은 식량자급과 農村福祉化를 위한 과제에 있어서 온 국민들의 정신자세라고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이를 돕는다”라는 말보다 더 次元 높은 金言은 서로 돕는 이를 하나님은 돕는다”라는 말이라고 할 것이다.